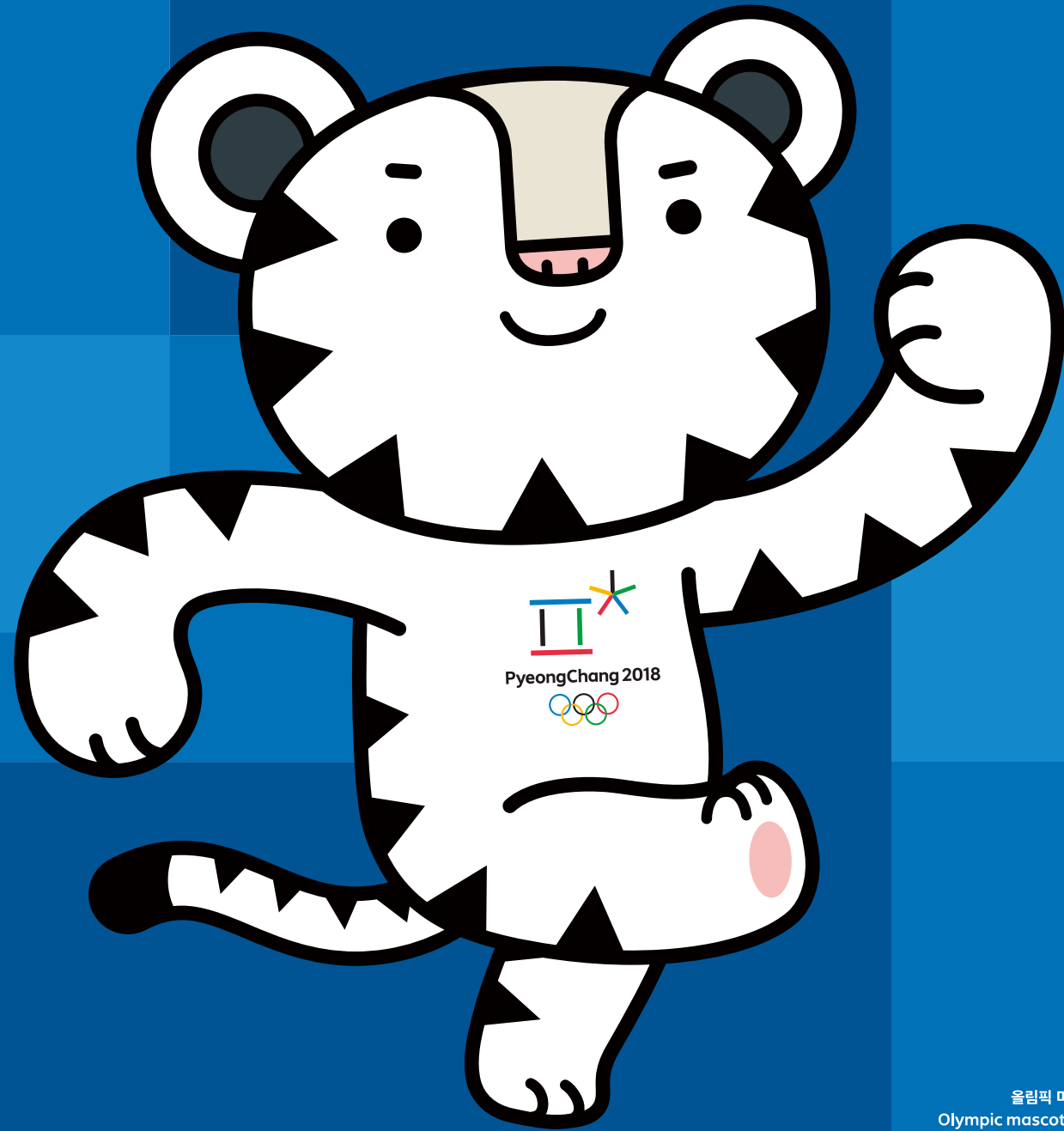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Olympic mascot Soohorang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201712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7년 12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K-message** | 존중과 배려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 하는 2017년
- 06 **Focus** | 2017 동반성장 우수 공공기관 부문 수상 외
- 10 **청백리** |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반부패 청렴 협의회 개최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8 **일하며 즐기며** | 이탈리아 돌로미티 알타비아 1 트레킹(1)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6 **新성장지도** | 과거로 흘러드는 감성여행 - 부산 산복도로의 마을들
- 32 **Storytelling** | 까치집의 복과 재앙
- 34 **기자칼럼** | PC방의 새 주인공 '배틀그라운드'의 성공 배경, '글로벌 시장 맞춤형 콘텐츠'와 '수평적 기업문화'
- 36 **생활과 과학** |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중력파 검출
- 38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 40 **KEPCO E&C NEWS** | 2017년도 제9차 이사회 개최 외
- 42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6 **Poem** | 그녀의 옷장
- 47 **에코포토** | 당신의 뒷모습은 안녕하신가요?



통권 431호 · 발행인 조직래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발행일 2017년 12월 10일	전 화 054-421-3114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epco-enc.com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존중과 배려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 하는 2017년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실로 다사다난 했던 2017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한 달의 시간인 만큼, 동료, 선후배간에 돈독한 정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없이 달려온 2017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기가족들에게 2017년은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사업의 축소 등 많은 경영지표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이 '공사재개로 정리되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많을 직원 여러분께 경영진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기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일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현실이 아닙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천을 해왔습니다. 속도가 한 걸음 빠른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지속성장 역량을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확충해 나가는 슬기가 중요합니다. 내부역량의 성숙 없이는 한기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성장역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한, 발전과 도약의 기회는 반드시 우리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경영진 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매진하면서, R&D와 사업구조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에 치중했던 원전해체사업과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신성장사업 수행체계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시스템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원전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해외원전 성과가 보다 구체화되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머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해외사업 성과를 축하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한기의 지속성장 역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외부환경 변화나 충격이 아닙니다. 바로 한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집음을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해서 의지와 핵심역량을 올바른 방향으로 결집해가고 있다면, 설사 어떠한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 집중력을 발휘할 때, 한기의 성장과 도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42년 역사 속에서 한기인에게만 독특하게 체화된 '열정과 성실'입니다. 한기의 이 특별한 잠재력이야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현실이라는 벽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다져놓은 딛고 댈 수 있는 단단한 땅이 필요합니다. 바닥이 다져지지 않은 땅에서 댈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기는 단기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탄실히 해야 합니다.

다. 기업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노력과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무적 성과로 귀결시키지 못한다면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이삭이라도 더 거두고자 하는 가을 농부의 심정으로 사업개발과 수익성 제고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기의 역량과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것입니다. 경영 전반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되는 혁신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변에 배어있을지도 모를 무사안일주의 또한 철저히 떨쳐내야 합니다. 신뢰와 책임의식, 그리고 조직의 응집력과 시너지 효과로 회사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가꾸고 키워나갈 기업문화입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연말이 무르익어 가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들뜨고 긴장이 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겸손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7년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온 동료와 선후배 직원간에 다시 한번 대화와 화합의 시간을 꼭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시대를 함께 하는 식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가슴을 활짝 열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금정의 말 한마디로 2017년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2017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에도, 올해 목표한 바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신입사장님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사장님 부채상황이 만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약 2개월여 정도가 지나면 신입사장님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동반성장 우수 공공기관 부문 수상

- 에너지기술 엔지니어링 공기업으로서
상생협력모델 선도



회사는 11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7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우수 공공기관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동반성장위원

회 안충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주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 동반성장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6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우수)을 달성하는 등 많은 사례와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사내 동반성장 협업 추진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로드맵을 실행하는 등 회사에 특화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및 상생협약 체결,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공동기술개발·교육지원 등 협력 중소기업과의 다양한 동반성장 사례들도 만들고 있다. 시상식에서 류홍재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에너지기술 엔지니어링 공기업으로서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반성장을 모범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 국제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완료

회사는 10월 27일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세계 16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4월 도입되어 많은 기업들이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추진조직 구성과 사내직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9월과 10월 2차에 걸친 인증심사를 거쳐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었다. 회사는 반부패의지 및 리더십,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리스크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활동 등 반부패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음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회사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받게 되었다. 또한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등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국제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회사는 이번 ISO 37001 인증을 기반으로 후속조치 이행과 청렴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ISO 37001을 포함하여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등 글로벌 경영시스템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김천시민 초청 간담회 개최

- 지역시민사회 참여 통한
‘열린혁신’ 추진 방안 모색

회사는 11월 20일 지역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열린혁신’ 기반구축 모색을 위해 ‘김천시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상임감과 박보생 김천시장, 백성철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호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강성애 김천대학교 총장, 이은직 경북보건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김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지역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지역사회와 ‘열린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혁신도시 대표 공기업인 한전기술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및 협력을 통해 열린혁신 과제 발굴 및 세부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적십자사 명예대장 수상

-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모범



회사는 11월 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기념 연차대회’에서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강보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을 비롯하여 적십자봉사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은 적십자 활동 및 사업조성에 공헌하고 모범이 되는 기관 등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기부문화에 앞장서왔으며,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시상식에 참석한 허순길 경영지원처장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김천혁신도시 반부패 청렴 협의회 개최

— 경북혁신도시 지역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노력 —



‘2017년도 제3차 경상북도·김천혁신도시 반부패 청렴 협의회’가 10월 16일 우리 회사에서 열렸다.

반부패 청렴 협의회는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김천시청,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달품질원 등 경상북도와 김천혁신도시 소재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혁신도시 민관청렴조직 구축사업과 반부패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지역 내 청렴문화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행사는 이동근 상임감사의 청렴특강, 부패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청렴특강을 통해 “내부적인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도 어렵지만 민관에게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협의회가 모범적인 활동을 통해 전국혁신도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너지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회사는 지속적인 협의회 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패방지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제2차 청백리연수 실시

—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맞아 김천지역 청렴 유산 탐방 —



회사는 지난 9월 26일 경북 김천 하로서원에서 '제2차 청백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청렴윤리주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김천지역 내 청렴 유산을 탐방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김천시, 김천문화원과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직원 30여명은 김천지역의 대표 청백리인 노촌 이약동(李約東)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하로서원을 살펴보면서 김천문화원 송기동 사무국장의 청렴 강의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목민관 자리에서도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청렴의 덕목을 강조했던 선생의 일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청백리 유산을 잘 살펴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과 반부패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렴윤리주간'을 제정하고 청렴특강,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배부, 청백리연수 등 청렴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회사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선도를 위해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입사원의 청렴‘한 소리’

- 청렴윤리주간 체험기 -

인사처 윤리경영팀. 아직 가지지 않은 입사의 기쁨을 안고 신입(인턴) 교육을 받고 있던 8월 초,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인사발령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교육을 받으며 청렴윤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윤리경영팀의 존재는 나에게도 주변 동기들에게도 생소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화두인 반부패·청렴을 우리 회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첫 부서 출근 날,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청렴윤리주간’이라는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청탁금지법의 시행 1주년에 맞추어 우리 회사도 다양한 청렴윤리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청탁금지법, 임직원윤리행동강령, 공직자 윤리법 등 여러 관련 법규와 지침이 미처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전에 약 3주간의 윤리주간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다.

September 13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작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협력사가 청탁금지법과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법이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려워하는 법이기도 하다. 윤리경영팀원으로서 청탁금지법과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은 꼭 숙지해야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이 나에게도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했다. 가이드북 시안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정독하게 되었다. 업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뜻밖의 일석이조였다. 가이드북 일부는 사장직무대행님의 서신과 함께 직접 우편 작업을 해 100여 개의 협력업체에도 발송됐다. 가이드라인 정독으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완벽하게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에 두고 수시로 찾아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September 19

청렴특강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 필수 교육인 청렴특강이 열리는 날이다. e매니지먼트 윤리경영연구소의 나상억 박사를 초청해 '이슈로 알아보는 청렴윤리'를 주제로 한 올해 두 번째 청렴특강이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교육인 만큼 출석체크가 혼란 없이 진행되는 것 역시 중요했기 때문에 노트북과 리더기를 설치하며 교육만큼 출석체크도 아무 오류 없이 끝낼 수 있길 바랐다. 잠시 후, 처음 겪는 대규모 인원에 조금은 허둥지둥하면서도 부서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석체크를 마무리하고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다. 깨진 유리창 실험, 인지부조화 이론 등 다양한 사례를 청렴윤리와 연결시킨 강의를 들으며 법을 떠나 조직이 청렴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GE사의 '볼펜 한 자루 윤리경영' 이야기를 통해 회사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사소한 비품 하나에도 윤리의식을 발휘하는 것으로부터 회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을 느꼈다.



September 21

청렴경진대회

신입(인턴) 교육이 끝나기 전 우리에게는 청렴경진대회 출전이라는 임무(?)가 하나 주어졌다. 참가 조를 나누고 첫 모임을 가졌을 때에만 해도 청렴윤리를 주제로 콩트나 사례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상상되지 않았다. 부서에서 윤리주간을 준비하며, 또한 동기들과 대회 준비를 하면서 차츰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지 방향을 잡아 나갔다. 우리 조는 명배우 동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주제로 한 짧은 연극과 UCC를 제작하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회의실에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대회 준비이기는 했지만 함께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다 보니 예상보다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정리를 해야 할 정도였다. 대회 준비와 진행으로 무대에는 함께 올라가진 못하지만, 주관 부서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조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준비해주는 모든 동기들에게 내심 고마웠다. 경진대회는 4기 신입에게는 인턴 생활의 막바지를 장식하는 피날레이기도 했다.





청렴경진대회는 발표뿐만 아니라 청렴실천 결의, 청렴 샌드아트 공연, 청렴골든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되었다. 딱딱한 법조문이나 강의를 떠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청렴윤리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기다 보니 금방 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대회 리허설을 시작하면서 기대 감도 있었지만 행사 진행을 잘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묘하게 밀려왔다. 그렇게 시작된 대회는 청렴실천 다짐결의와 사장직무대행님 격려사로 차분하게 시작해 신나는 동기들의 청렴가요 합창을 첫 순서로 한 경진대회로 이어졌다. 신입 인턴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발표와 UCC도 모두 훌륭하고 의미 있어 순위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모든 행사 프로그램이 끝나고 무대에 모두 나와 시상식을 하는 순간은 순위에 상관없이 즐기는 분위기였다. 이런 자리를 통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청렴윤리 문화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또 하나의 바람이 생겼다. 그렇게 청렴경진대회와 우리들의 파날레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September 26

청백리연수

상반기 안동에서 실시했던 1차 연수에 이어 이번 연수는 김천시와 김천문화원의 협조로 김천 하로서원에서 진행되었다. 하로서원은 조선시대 대표 청백리인 노촌 이약동 선생을 모신 서원이다. 이약동 선생은 제주 목사와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채우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던 분이라고 한다. 소박하지만 고즈넉한 하로서원의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김천문화원 송기동 사무국장의 특강을 들으며 청렴한 공직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주 목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섬에서 받은 모든 것을 놓아두고 심지어 쓰던 말채찍마저 관아 앞 바위에 두고 왔다는 일화는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잘 보여준다.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청백리 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참가 선배의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의 청렴 유산을 발굴하고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연수를 마무리 했다.



September 27

청렴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청렴윤리주간의 마무리는 청렴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청렴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가장 궁금한 윤리주간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사내 청렴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윤리경영지킴이, 성희롱고충상담원 및 선발직원을 대상으로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강을 함께 들어 보기로 했다. 프레젠테이션 전문 강사의 능숙한 리드로 발표 스킬 뿐만 아니라 강의자로서 강의를 진행할 때 알면 좋은 팁을 실습을 통해 전수 받았다. 특히, 함께 프로그램을 이수한 선배님들이 조 활동을 적극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고 발표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사내 청렴윤리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강사만큼 능숙하고 재미있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발표와 강의 스킬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 쌓였다.

COMPLETE

청렴윤리주간을 마치며

신입사원으로서 윤리경영팀에서의 첫 번째 청렴윤리주간을 조금은 정신없이, 그러나 나름의 의미를 남기고 끝마쳤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고, 참가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단순히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었다. 아직은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이지만, 왜 청렴윤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청렴윤리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윤리주간을 준비하며 동기들과도 함께할 수 있었고, 윤리경영팀의 일원으로 팀장님과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E&C**





달력이 달랑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벌써’라는 말을 되뇌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온전히 행복했던 날은 몇 날이나 되는지,
화나고 짜증난 순간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의 곱고 아름다운 소리는 모두가
상처 입은 몸을 통과 하면서 나온다 하였으니
금 수저 흠 수저라는 말로 자신을 체념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을 이기면 일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일류가 된다고 하였는데
익숙함에 대한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어떤 복종과 순응이라도 거기에서 조금은 벗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되므로.

상상력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늘 그런대로 행동하고 늘 그런 이가 됩니다.
늘 그런 이는 늙은이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드 먹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상의 늪에서 맞이한 한해의 끝자락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가고
우리의 삶은 다시 소생의 기운을 얻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위와 초원이 어울려 춤추는 천상의 고원

이탈리아 돌로미티 알타비아 1 트레킹(Ⅰ)



돌로미티(Dolomites)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와 오스트리아 남 티롤에 위치한 바위산군으로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알프스 산맥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트레킹 전 구간에 걸쳐 온갖 만물 모양을 한 날카로운 봉우리의 바위산군, 그리고 바위산군 아래 펼쳐진 천사의 미소와도 같은 평화로운 초원이 함께 어우러져 경이로운 풍광을 선물한다.



돌로미티의 대표적인 클래식 트레킹 루트인 알타비아 1(Alta Via 1)은 돌로미티 중심 지역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종주하는 150km 코스이다. 출발점인 브라이에스 호수(Lago di Briaes)에서 종착점인 벨루노(Belluno)까지 이어지지만, 중간 지점인 파소 듀란(Passo Duran)까지 약 90Km를 일주일 내외 일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곳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치열하게 마주보며 대치하던 요새지역이기도 하다. 그중 이탈리아 남쪽 요새 친퀘토리(Cinque Torri)와 오스트리아 북쪽 요새 라가주오이(Lagazuoi)는 파소 팔짜레고(Passo Falzarego)를 가운데 두고 전쟁을 치른 치열한 격전장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경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울 봄부터 준비해온 알타비아 1 트레킹을 전/현직 동료 및 친구 15명이 9월 초에 부푼 기대를 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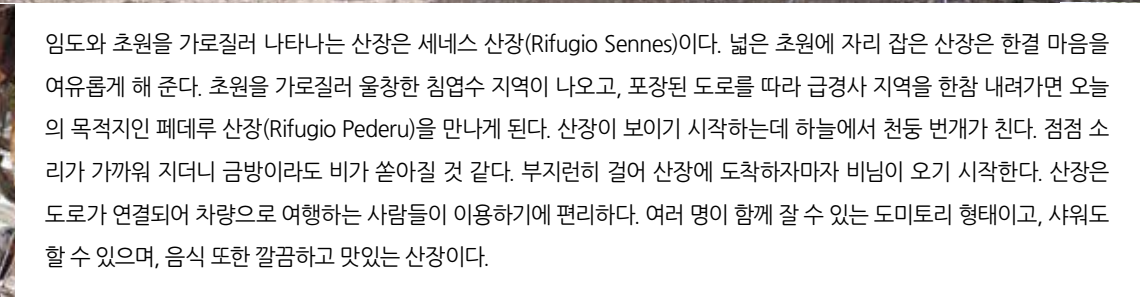




트레킹 첫날 아침에 비님이 오신다. 알타비아 1 트레킹의 출발점인 브라이에스 호수의 에메랄드 빛 호수에서는 거대한 절벽과 푸른 침엽수림과 어울려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날이 개면서 떠오른 무지개는 앞으로의 트레킹이 멋진 트레킹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호수를 끼고 호젓한 산길을 따라 걷다가 호수와 헤어진다. 본격적인 산길이 나오면서 거대한 암벽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민다. 급경사 지역이 나타나면서 주변에 온통 거대한 돌덩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친 돌산이다. 암벽들은 마치 시루떡 모양으로 얇은 판자를 겹겹이 쌓아 놓은 듯하다. 지코펠(Seekofel, 2,812m) 산이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반대편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고갯마루를 내려오면 나타나는 비엘라 산장(Rifugio Biella)은 돌로 지은 아담한 3층 건물이다. 점심식사 후 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긴다.



임도와 초원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산장은 세네스 산장(Rifugio Sennes)이다. 넓은 초원에 자리 잡은 산장은 한결 마음을 여유롭게 해 준다. 초원을 가로질러 울창한 침엽수 지역이 나오고, 포장된 도로를 따라 급경사 지역을 한참 내려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페데루 산장(Rifugio Pederu)을 만나게 된다. 산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 지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다. 부지런히 걸어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비님이 오기 시작한다. 산장은 도로가 연결되어 차량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여러 명이 함께 잘 수 있는 도미토리 형태이고, 샤워도 할 수 있으며, 음식 또한 깔끔하고 맛있는 산장이다.





둘째 날 아침, 전날 오후부터 오기 시작한 비는 늦은 저녁에는 진눈깨비로 바뀌어서 트레킹 일정을 걱정스럽게 하더니,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니 밤새 눈으로 바뀌어 푸른 초원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다. 늦은 여름에 보는 하얀 눈이라니! 멋진 풍광에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산장 근처의 백운석 암벽들은 하얀색에서 떠오르는 햇빛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는 멋진 경관을 선물한다. 페데루 산장에서 출발하는데 처음부터 오르막이다. 황량한 오르막길을 올라 산허리를 휘회 돌아 침엽수가 펼쳐진 산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타난다. 왼쪽은 파네스 산장(Rifugio Fanes), 오른쪽은 라바렐라 산장(Rifugio Lavarella)이다. 왼쪽 길로 접어들자 시냇물이 시원하게 흐른다. 모두 알프스 산맥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일 것이다. 파네스 산장을 지나자마자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고갯마루에서 눈 덮인 평원을 만난다. 하얗게 펼쳐진 평원에 하늘에 구름이 물려왔다가 사라진다. 잠시 하얀 천국을 걷다 보면 산중 호수를 만난다. 구불구불 부드럽게 이어진 산길을 가다 보면 전망 좋은 곳에 아담한 산장이 나타난다. 나무로 지은 말그란 파네스(Malga Gran Fanes) 산장이다. 이곳에서 간단한 점심과 차 한 잔으로 여유를 즐긴다. 염소 떼가 넘어오려고 애쓰는 정겨운 산장의 나무 담장을 넘으니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초원이 끝나자 위협적인 두 봉우리가 나타난다. 라가주오이 산장으로 가는 알타비아 1 코스인 포르첼라(Forcella, 2,486m) 고개가 두 봉우리 사이로 얼굴을 드러낸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갈림길에서 카파나 알피네(Capanna Alpine)로 가는 급경사 지역을 내려온다. 카파나 알피네까지 내려와 차량으로 파소 팔짜레고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라가주오이 산장으로 이동한다. 라가주오이 산장은 돌로미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전망대다. 산장 앞에 놓은 테이블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멀리 펼쳐진 봉우리들.... 제1차 세계대전의 격전 현장이며 암벽등반의 메카로 불리는 토파네(Tofane, 3,244m), 날카로운 톱날 능선의 크로다 다 라고(Croda da Lago, 2,716m), 거대한 바위덩어리인 펠모(Pelmo, 3,169m)와 시베타(Civetta, 3,220m) 등의 풍광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저녁식사 전에 산장 위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십자가가 있는 정상까지 걷는다. 돌로미티 암봉 사이로 붉은 태양이 노을을 남기며 신비롭게 빛을 뿜어낸다. 정상의 십자가는 1차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오스트리아 병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새벽에 나오니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다. 복두칠성, 카시오페이아자리, 오리온자리 등등... 아쉽게도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E&C**



C ommunication

한적한 자연속에 지어진 그림 같은 집,
편안한 옷을 입고 낮은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가까운 사람끼리 벽난로 앞에서 온기를 나눈다.
창밖엔 눈보라 휘날려도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과하지 않는 음식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도란도란 기분 좋은 담소가 이어진다.

매일 매일을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과 두 해 전에 이런 집으로 이사 간 친구가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전원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도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난데없이 플롯을 같이 배우자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 중에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생은 공부하느라 어른은 일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만 공부하고, 오전만 일하고, 오후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 투자하며 행복해 지시기 바랍니다.”
꿈같은 이야기에 공감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반복되는 일상,
모처럼의 휴일에 온종일 TV 채널만 돌리고 있다면
생의 요소요소에 즐거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밥과 국만 먹어도 배는 부릅니다.
그러나 반찬이 풍성하고 과일까지 곁들이면
음식의 다양한 맛을 알게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습니다.
문학을 알고 미술을 알고 여기에 음악을 곁들이면
무미건조한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아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과거로 흘러드는 감성여행

부산 산복도로의 마을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제일 큰 항구도시. 도시와 닿아 있는 다양한 풍경을 가진 바다, 바다를 둘러싼 마천루의 빌딩 숲과 랜드마크가 되어 버린 다리. 부족함이 없는 관광 인프라와 철마다 펼쳐지는 문화행사들로 부산은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다. 근래 들어 부산에는 새로운 명소들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산복도로변의 오래된 마을들이다. 중년 세대에게는 향수와 젊은 세대에게는 생경함을 주는 독특하며 아름다운 마을들을 돌아본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산복도로

조금은 생소한 산복도로는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산중턱을 지나는 도로를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개발이 이루어진 경사지 가장 위쪽에 자리한 도로를 의미한다. 부산의 산복도로는 부산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다. 개항과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양한 외국인들이 대거 부산으로 유입되었고, 부족한 도심 주변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부산은 원래 산지가 많고 평지가 좁은 곳이다. 낙동정맥을 따라 내려온 산줄기가 금정산을 지나 해안까지 이어져 있다. 개항기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부두노동자들이 자연스레 산지를 따라 판자집을 지으면서 산복도로 마을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 더 높은 산지까지 판자촌 마을이 확대되었고, 60년대 산업화 시대까지 확장이 계속 이어졌다. 산동네들을 연결하는 산복도로는 1964년, 초량동에서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며 산 위 마을까지 다니는 노선버스가 생겨나고 산복도로는 산동네 곳곳을 거미줄처럼 이어주며 산 위 주거지와 산 아래 생산 활동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파른 길을 달리는 대형 버스에 몸을 싣고 산 아래 일터로 향했다가 다시 산 위의 집으로 돌아왔다. 부산의 산복도로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동구·중구·서구·사하구·사상구를 기준으로 총 2만 2,229m이다.



01

01 레고마을 혹은 부산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문화마을 02 초량교회 앞의 갤러리 담장. 문화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03 계단길은 모노레일을 이용해 오를 수 있다 04 부산 시내를 조망하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02



03 04





05

05 부산역 지하도를 건너면 나타나는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 06 재미있는 조형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카페 07 계단길 건물에 설치된 옛날 이곳사람들의 애환이 표현된 조형물 08 골목골목 그려진 벽화들도 독특하고 재밌다 09 168계단으로 이루어진 168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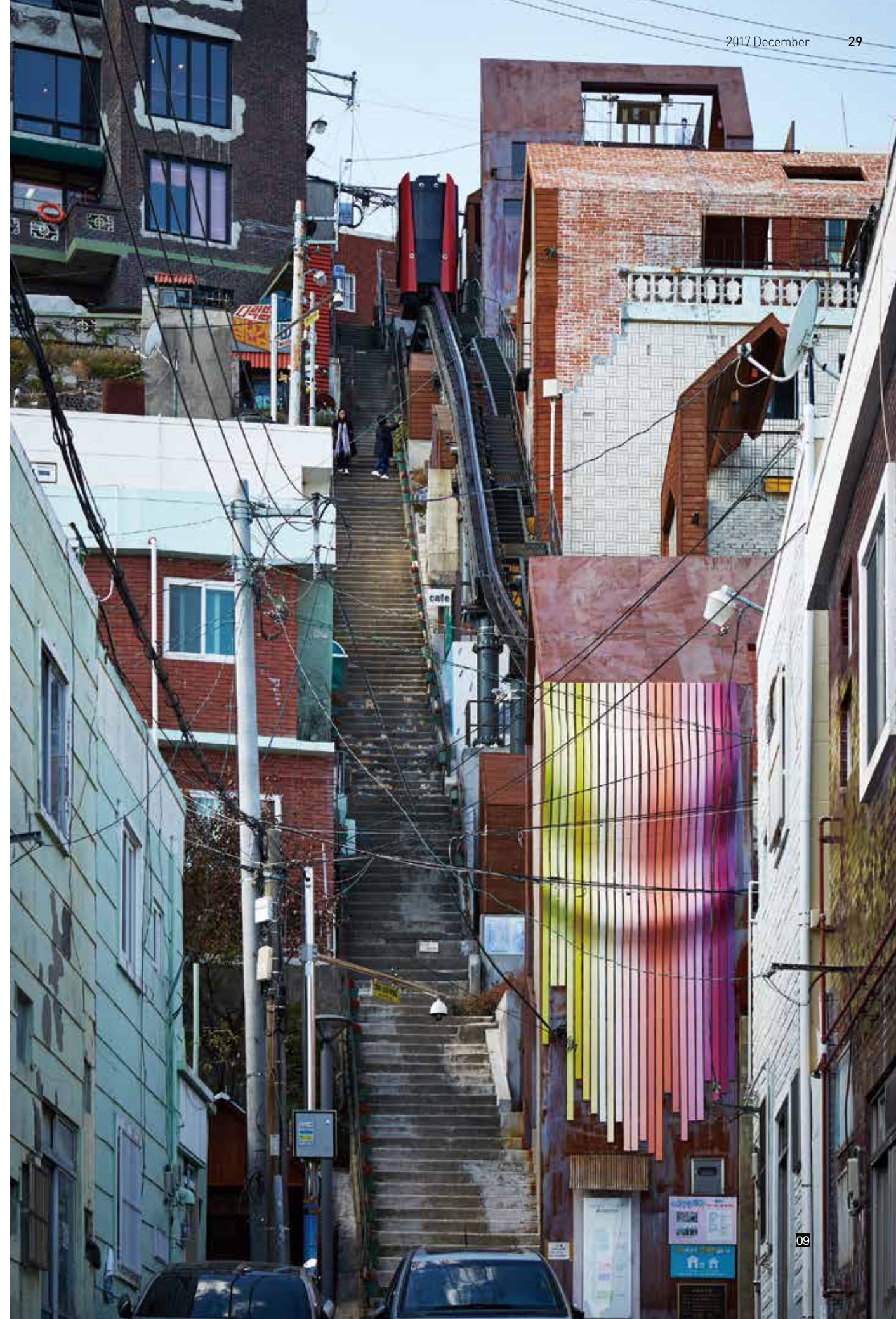
부산의 관문, 동구 초량동 이바구마을

동구는 부산의 관문이다.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이 자리하고 있고,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하면서 신식 문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곳이다. 병원과 물류창고, 학교와 교회 등이 들어섰고 이런 역사적, 문화적 토양 속에 당연히 이야깃거리도 많은 곳인데, 이야기를 부산 사투리로 하면 이바구가 된다. 이바구길은 이런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부산역을 등지고 지하도를 건너면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가 나오고 이를 관통하여 초량교회 앞에 이르면 이바구길이 시작된다.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로 1893년 선교사 애덤슨에 의해 설립되었다. 교회 건너편 벽에는 갤러리 형태의 담장이 이어지는데, 이바구길과 관련한 글과 함께 동구에서 나고 자란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독립운동가, 정치인, 예술가, 연예인 등인데, 개그맨 이경규와 가수 나훈아, 음악감독인 박갈린, 시인 유치환, 연출가 이윤택이 이곳 초량 출신이다. 갤러리 담장을 따라 올라가면 168길이 나온다. 우물터부터 시작해 모두 16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길이다. 경사도가 꽤 있어 보이지만 걱정 마시라. 바로 옆에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된다. 수시로 오가는 모노레일에 탑승하면 주변정치를 감상할 틈도 없이 금세 상부정류장에 오른다. 정류장 옆으로 김민부 전망대가 있다. 김민부라는 이름은 생소해도 그가 만든 노랫말은 들어 보면 금세 알아챌 것이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로 시작되는 가곡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그가 만든 노랫말이다. 열다섯 살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천재 시인으로 그를 기려 이름 붙인 김민부 전망대에 오르면 부산항의 전망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모노레일 구간이 지나는 168길 주변으로 카페와 분식점, 갤러리 등이 모여 있다. 길은 마을 주민과 여행객들을 자연스레 이어준다. 마을 곳곳에 게스트하우스와 깔끔한 현지식 식당들, 작고 아담한 기념관과 박물관이 마련되어 슬슬 다리품을 팔아가며 돌아보기 좋다.

이바구길 홈페이지 <http://tour.bsdonggu.go.kr>



06



07



08

09



10

부산의 산토리니?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을 부르는 별칭이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태극도마을, 부산의 산토리니와 레고마을이다. 태극도마을은 예전 태극도라는 종교단체의 신앙촌 역할을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산토리니는 그리스 산토리니의 벼랑 끝자락에 만들어진 오밀조밀한 마을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레고마을 역시 마치 레고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쁘고 독특하며 감성적인 공간으로 여행자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감천마을의 역사를 돌아보면 왠지 눈물겹다. 감천마을은 1950년대 피난민들이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며 시작되었다. 부산에서도 낙후된 대표적인 달동네 중 하나였다. 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터를 다지고 판잣집을 층층이 쌓아 올리듯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독특한 모양 또한 사연이 있다. 판잣집은 화재에 취약해 방화선 역할을 하도록 6m의 간격을 두고 길과 계단을 만들어 구획했다고 한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판잣집은 슬레이트와 슬라브 건물로 바뀌었지만 마을의 형태는



11



12

바뀌었지만 마을의 형태는



13

그대로 남아 요즘 사람들에게 신기한 풍경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9년 예술 창작 집단인 '아트팩토리인 다대포'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2010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 사업'에 선정돼 마을의 빈집을 예술 창작실

혹은 갤러리로 개조하거나 북카페, 식당, 민박집 등으로 만들고, 마을 공터와 옥상을 생태 정원으로 바꾸는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독특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감천마을 돌아보기

감천마을에 들어서면 우선 안내센터를 먼저 둘러본다. 미로 같은 골목들이 보기 쉽게 정리된 골목투어 지도를 구입할 수 있고, 요소요소 숨겨져 있는 볼거리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돌아보려면 아무래도 지도 한 장은 있어야할 만큼 넓다. 플라쥬 형태의 커다란 물고기가 그려진 벽을 지나면 보이는 작은 박물관도 필수 코스다. 아담하지만 마을의 역사와 옛날에 사용하던 집기, 도구, 생필품들이 전시되어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본격적으로 마을에 들어서면 채색된 골목골목마다 예쁜 카페와 식당,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 아트숍 등을 만나게 된다. 입주 작가와 마을사람들, 여행자의 커뮤니티 공간인 감내어울터도 필수 코스다. 이 공간은 예전 공중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것이다. 마을 오르판에 자리한 하늘마루에 오르면 부산항과 감천항, 용두산을 비롯해 마을과 주변풍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입주 작가는 물론 마을사람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감천마을 홈페이지(<http://www.gamcheon.or.kr>)를 통해 정보를 얻고 방문하면 좋을 듯하다. 사전예약도 필수다.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 051-204-1444

감천마을 시설물 이용시간 3~11월 09:00 ~ 18:00 / 12~2월 09:00 ~ 17:00 E&C

10 감천마을 초입의 작은 박물관 11 박물관에는 감천마을의 역사와 옛날 생필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12 하늘마루 전망대에 오르면 마을과 감천항의 풍경이 펼쳐진다 13 골라주로 만들어진 커다란 물고기 조형물

까치집의 복과 재앙

◆ 조선시대 천재들의 머리 대결

이 이야기는 비록 세속에서 전해지는 말이지만 그것이 종종 잘 들어 맞는다는 것을 예증을 통해 보여 준 것이다. 집 남쪽에 있는 까치집 때문에 벼슬을 오른 것은 무관의 복이자 경사이다. 이 이야기는 까치 집을 남쪽에 둔 무관만이 복을 얻은 것 같지만, 재상 역시 재앙과 같은 근심거리를 없애게 된 것이다. 그것도 까치집이 헐리면서 말이다. 이는 민간에 전해지는 말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험에 삶의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이런 참언초차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일반백성들의 소리를 더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내제되어 있다.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골동록(汨董錄)

시 기 : 미상

인 물 : 재상, 무인

주 제 : 민속, 생활, 속언

장 소 : 서울특별시



1700년대를 전후로 하여 조선에는 민간에서 전해지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집의 남쪽에 까치집이 있으면 벼슬에 나아가거나 재물을 얻거나 과거에 급제하지만, 까치집이 집의 북쪽에 있으면 재앙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양 땅의 고즈넉한 마을에 대갓집이 있었다. 이 집은 재상의 집이었다. 재상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집의 북쪽에 까치집이 있었던 것이다. 재상은 혹 무슨 일이 생길까 까치집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편이 걸렸다.

혹 국정에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늘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재상의 집 바로 뒤에는 계급이 아주 낮은 무관이 살고 있었다. 무관의 집에서 보면 까치집은 바로 정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재상은 자신의 힘과 지위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까치집을 부술 수 있지만, 다만 구설에 오를까 하여 이 마저도 하고 있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재상은 뒷집에 사는 무관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 재상은 무관을 집의 정자에 불러 술상을 차렸다. 재상은 무관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며 말을 했다.

“자네 집 바로 앞에 있는 까치집을 아는가?”

“대청에서 늘 보이거늘 아다 뿐 이겠습니까.”

무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였다. 재상은 할 수 없이 무관을 부른 까닭을 이야기했다.

“자네, 세간에 전하는 말을 들었는가?”

“무슨 이야기를 말입니까?”

“아, 까치집이 집의 남쪽에 있으면 경사가 있지만, 집의 북쪽이 있으면 재앙이 있다는 그 말 말이네.”

“아, 예, 알고는 있습니다.”

“내 까치집을 없애려 생각을 해 보았지만, 자네에게 그것이 길한 징조라 없애기가 매우 꺾뺨하네.”

그러자 무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없애시지요.”

재상은 한편으로 자신이 의도했던 답이지만, 한편으로 과연 이 말이 무관의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물었다. “세상에서는 남쪽의 까치집이 길한 징조라는데,

자네는 내게 없애라 하면서도 꺼리는 기색이 없으니 어째서인가?”

무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제가 대감 집의 뒤에 산 지 어언 30년째입니다. 위세가 등등하다는 대감도 앞집에 살고 계시고, 길하다는 까치동지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껏 한 급수도 승진하지 못했는데, 까치집의 길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없애십시오.”

무관은 계속 말을 하려 하였으나, 재상이 말을 끊으며 말하였다.

“그만하시게. 내 잘 알았으니.”

다음 날 무관에게는 벼슬 한 자리가 내려갔고, 까치집도 헐렸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던 중력과 검출

2015년 9월 14일 오전 11시 51분(유럽표준시·CET)

독일 막스플랑크중력물리학연구소의 젊은 물리학자인 마르코 درا고는 막 점심을 먹으려던 찰나 모니터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지구에서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어딘가에서 발생한 미세한 흔들림(Space Vibrate)이 포착된 것이다.

훗날 'GW 150914'라고 명명된 이 흔들림은 곧바로 미국의 레이저간섭계 중력파관측소(LIGO; 이하 라이고)에 전해졌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며 예측한 중력파(Gravitational Wave)다. 미세하기 짝이 없는 이 파동은 물리학계에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충격을 가져왔고,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 충격에 주목했다.

2017년 노벨물리학상은 중력파 검출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라이고 연구진에게 돌아갔다. 공동 수상자인 라이너 바이스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명예교수, 배리 배리시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 석좌교수, 킵 손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명예교수는 라이고를 제안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세 명의 물리학자다. 공식적인 수상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 예측한 중력파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공로다. 도대체 중력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관련 연구자가 노벨상까지 차지하게 된 것일까.



2017년 노벨물리학상의 영예는 중력파 검출에 큰 공을 세운 3명의 물리학자에게 돌아갔다. 좌측부터 라이너 바이스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명예교수, 킵 손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tech) 명예교수, 배리 배리시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석좌교수. 출처: Nobel Media.

100년에 걸친 도전

중력파는 쉽게 말하면 시공간(space-time)이 뒤틀리면서 발생한 파동을 말한다. 중력이 변동을 일으킬 때 생겨나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며 광속으로 퍼져나간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될 때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중력파가 방출된다고 한다.

문제는 그 세기가 너무나 미약해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실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용인되지 않는 것이 과학의 세계다. 때문에 중력파를 검출하는 것은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도전과제가 되었다.

100년에 걸친 끈질긴 도전을 마무리 지은 것이 1987년 출범한 거대 프로젝트 라이고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20여 개 국가에서 1,0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결국 연구진은 거대한 레이저간섭계 두 개를 이용, 13억 년 전 두 블랙홀이 부딪쳐 발생한 중력파가 지구를 스쳐 지나갈 때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원자핵의 수 천 분의 일 정도에 해당하는 극히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했지만 과학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또 기했다. 관측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만 5개월이 걸렸고, 마침내 2016년 2월 11일 논문이 발표된다.



사상 최초로 관측된 중력파 패턴. 이 작은 떨림이 전세계 물리학자들에게 준 충격은 대단했다. 출처: Nobel Media

한 번 실타레가 풀리자 모든 일이 순조로워 졌다. 라이고의 검출기들은 현재까지 총 4번의 우주 진동을 포착했다. 인도와 일본에 건설 중인 새로운 중력파 관측 시설이 완공되면 중력파 검출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력파 검출의 가장 큰 의의는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천문학은 전자기파와 빛에 의지했다. 중력파파는 물질과 거의 간섭하지 않기때 빛처럼 반사·왜곡되지 않고 전자기파처럼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모든 물질을 잘 투과한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론적으로만 상상하던 블랙홀 내부를 관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초기 우주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빅뱅 직후의 우주를 간접적이거나 관측할 수 있다면 우주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비밀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생활에서는 통신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투과해 버리는 특징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는 이야기이지만, 만약 중력파 통신이 가능하다면 지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획기적인 통신 수단이 될지 모른다.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언젠가 중력파 스마트폰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ES&C**



Festival

평창송어축제 2017

기 간 : 12월 22일 ~ 2018년 2월 25일 장 소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



해발 700M의 하늘 아래 첫 동네!

전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 평창 '송어축제'

우리 조상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려 옆집까지 서로 줄을 매어놓고, 그 줄을 따라 눈 터널을 만들어 왕래하였고, 차가운 강바람에 개어울이 일찍 합강되면 강속의 큰 바위를 망치로 두드려 겨울 물고기를 사냥을 해서 한끼니를 때우던 그 어렵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핏박을 축제로 승화시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 이야기 라는 주제로 매년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평창 송어축제가 한마당 펼쳐진다. 얼음 위에서 보면 오대천의 노니는 어류가 투명하게 보이는 가운데 송어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다양한 겨울체험 행사와 함께 진정한 겨울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수 있다.

www.festival700.or.kr

Exhibition

테리 보더-먹고 · 즐기고 · 사랑하라

기 간 : ~ 12월 30일 장 소 : 사비나미술관

미국 아티스트이자 메이커인 테리 보더(Terry Border)는 철사를 접고 구부려 창조한 인격화된 캐릭터에 감정이입, 소통, 공감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결합한 벤트 아트(Bent Art)로 인간세상을 풍자하는 한편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예술가로 유명하다. 이번 사비나미술관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상천외한 벤트 아트 80여 점을 오브제, 사진,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다. 본 전시는 단지 구부러진 철사만으로 은유, 수사, 유머, 감성, 상상력으로 빛나는 세상을 창조한 테리 보더의 경이로운 작품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식탁이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과일, 야채, 과자, 치즈 등의 식료품이나 일상용품을 작가만의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마치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사물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은 유쾌함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www.savinamuseum.com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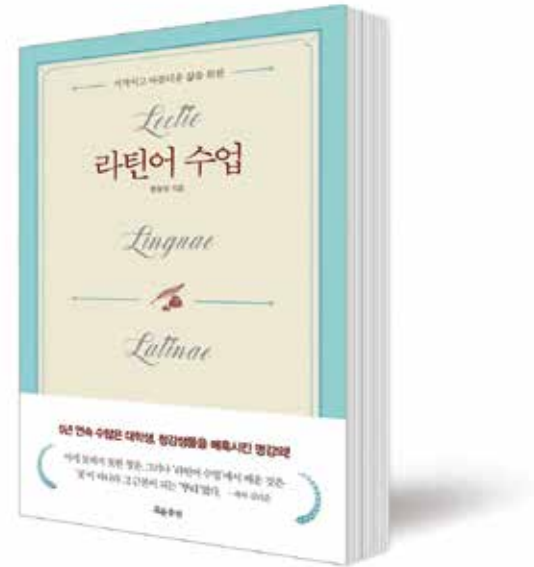
라틴어 수업 :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5년 연속 수많은 대학생, 청강생들을 매혹시킨 명강의

지식을 넘어 삶의 근본을 다지는 '라틴어 수업'

2010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됐던 한동일 교수의 라틴어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서강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신촌 대학가를 벗어난 지역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까지 찾아오기에 이른다. 이것이 당시 언론에 '화제의 명강의'로 기사화되어 더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라는 저자의 이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저자의 강의를 인기를 끈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라틴어의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된 유럽의 언어들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음식, 놀이 문화, 사회제도, 법, 종교 등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가 유학 시절 경험했던 일들, 만난 사람들, 공부하면서 겪었던 좌절과 어려움, 살면서 피할 수 없었던 관계의 문제,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성찰 등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화두들이 수업에 녹아 있었다. 종합 인문 교양 수업과 같았던 저자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고, 더 나아가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수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동일 저 | 흐름출판



Movie

오리엔트 특급 살인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걸작

세기의 추리가 다시 시작된다!

세계적 명탐정 '에르쿨 포와로'(케네스 브래너)는 사건 의뢰를 받고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초호화 열차인 오리엔트 특급열차에 탑승한다.

폭설로 열차가 멈춰선 밤, 승객 한 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기차 안에서 벌어진 밀실 살인,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13명의 용의자.

포와로는 현장에 남겨진 단서와 용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미궁에 빠진

사건 속 진실을 찾기 위한 추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상영중



KEPCO E&C N e w s



● 2017년도 제9차 이사회 개최

2017년도 제9차 이사회가 지난 11월 9일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상임 및 비상임이사 등 총 6명이 참석한 이날 부의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차 임시주주 총회 소집(안), 주주명부 폐쇄(안) 등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 2017년 스페셜리스트 워크숍 개최

‘2017년 스페셜리스트 워크숍’이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과 기술전문분야 스페셜리스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7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스페셜리스트들이 회사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활동을 보다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스페셜리스트의 전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우수 전문활동 사례 발표(직무특허 출원, 대외 논문발표), 스페셜리스트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스페셜리스트 제도 발전방향 토론에서 경험기술의 내부 확산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수종 기술에 대한 도전과 대외 전문활동의 확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조직래 사장 직무대행은 “각 기술분야 최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전문활동을 강화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페셜리스트들이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사내 전문가를 넘어 해당 기술분야 최고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원전 안전해석코드 및 방법론 유지보수 협정 체결

회사는 지난 9월 2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전 안전해석코드(SPACE) 및 원전 적용방법론 유지보수 협정’을 체결했다. 원전 안전해석코드 및 방법론 인허가 취득 기념 워크숍을 겸한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이광원 단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종호 기술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부원장, 한전원자력연료 권정택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자체기술로 개발된 SPACE 코드의 유지보수 및 개선, 국내 안전해석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각 참여 기관은 △코드 및 방법론의 수정·개선 △사용자그룹 운영 △기술 보안유지 등 안전해석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원전 안전해석코드 및 방법론 인허가 취득 기념 워크숍에서는 인허가 취득 현황과 성과보고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우리 회사 안전해석그룹 박찬익 부장이 SPACE 코드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신보령화력 2호기 상업운전 개시

우리 회사가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한 신보령 2호기 상업운전 개시 기념행사가 10월 13일 신보령건설 종합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재원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장성의 한국중부발전 사장직무대행 등 관련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보령화력 2호기는 2016년 8월 최초점화 이후 모든 기자재의 단위기기 시운전과 지난 2월 계통병입 후 연소시험, 부하시험, 신뢰도운전 등 종합시운전을 거쳐 2017년 10월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1000MW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주관하고 우리 회사와 중부발전,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 차세대화력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증기압력(265Bar)과 온도(주증기/재열증기 610/621℃)를 채택하여 발전소 효율을 높임으로써 석탄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회사는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이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준공도서 작성 등 잔여 역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2017년 신입사원 직무입문교육 실시

2017년 신입사원 직무입문교육이 10월 24일 3층 교육장에서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입사한 신입사원과 미수로 직원 등 49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26일과 10월 30일~11월 2일, 총 7일간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내용은 원자력, 원자로계통 설계, 플랜트, 공통 등 4개분야의 23개 기술분야 38개 교과과정으로 구성 되었으며, 담당교과 강사들이 교재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신입사원 직무입문교육은 국가에너지사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입문 단계로서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및 사업관리의 기본지식 습득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2017년도 제9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9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친절직원	원자력사업관리실(책임급)	한 은 경	원전해체사업실(책임급)	최 광 순
모범직원	정보보안전략실(선임급)	김 태 범	계약실(책임급)	남 군 우
미담직원	신)전기계측기술그룹(책임급)	송 은 상	EPCM통합지원실(책임급)	정 재 영
봉사직원	원자로사업관리실(주임급)	김 교 상	원자로사업관리실(주임급)	한 홍 록



부담스러운 화분

거래처의 화분 선물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및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현금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 등

거래처 화분 선물



화분을 되물릴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화분이나 꽃바구니는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므로 거절하거나 회송해야 합니다.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본부/단별 행동강령책임자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십시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토목테니스회(CTC)



토목테니스회(CTC)는 지난 10월 28일 김천본사 테니스코트에서 2017년도 추계 테니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CTC는 토목 직원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춘계 및 추계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추계 테니스 대회 경기 진행은 A조와 B조로 나누어 복식 경기로 진행하였다. 대회 결과, A조 1등은 광병기 대리, 2등은 허영 부장이 차지했고, B조 1등은 유성호 부장, 2등은 이강우 부장이 차지하였다. 토목테니스회(CTC)는 토목기술자 선·후배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준 결과, 매회 경기마다 회원 간 무르익은 기량 과시와 친목과 소통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정경진 대리 : 10월 22일 엘블레스
- ▶ 원자력기술그룹 조종연 대리 : 10월 28일 천안 웨딩베리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이우택 부장 자녀 : 10월 28일 옥수동성당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한희환 처장 자녀 : 10월 28일 워싱턴 지구촌교회(미국)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류상원 대리 : 10월 28일 더 포레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김학민 사원 : 10월 28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
- ▶ 신사업)기계배관기술그룹 정병조 상무 자녀 : 11월 4일 파티오나인
- ▶ 원자력사업처 윤선영 사원 : 11월 4일 아산 CA웨딩컨벤션
- ▶ 신사업)기계배관기술그룹 임정빈 사원 : 11월 4일 그랜드컨벤션센터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그룹 최병준 부장 자녀 : 11월 11일 베르가모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박수중 대리 : 11월 11일 안동 그랜드호텔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임덕재 부장 자녀 : 11월 11일 둔산 사학연금웨딩홀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박초원 사원 : 11월 11일 부산 그랜드블랑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이봉희 과장 : 11월 11일 유성 컨벤션웨딩홀

부음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그룹 김삼곤 부장 모친상 : 10월 11일 분당 차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박수일 차장 장인상 : 10월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박선웅 과장 장인상 : 10월 14일 삼성서울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장근백 부장 장모상 : 10월 18일 대전 을지대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김희명 대리 부친상 : 10월 19일 안산 고려대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옷장

Writer 방 미 경 원자력)사업책임자실 이상배 처장 부인

그녀는 오늘도 옷장을 마주하고 섰다
한 번씩 털어내고 정리해도 빼곡하다
철지난 옷
작아진 옷
빛바래고 낡은 옷도
늘 그 자리인 마냥 편안하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청바지
손때 묻은 스카프에
이야기 한둘 없을까
무슨 사연 고이 간직했기에
긴 세월을 버리지 못한 코트에도
한켠 자리를 내어준다

아무리 비좁아도 어느새
새로운 옷 들어올 자리 마련하고
화학섬유 냄새에도 찡그리는 법 없다

그녀는 오늘도 옷장을 마주하고 섰다
그녀의 옷장은 화려할 것도 웅색할 것도 없다



당신의 뒷모습은 안녕하십니까?

오른손의 손바닥과 손등은 마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왼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은 내 뒷모습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고 친구가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료는 내가 보지 못하는 뒷모습을 보아 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료의 뒷모습이 멋져 보일 때 환하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 치며 멋있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멋지게 빛날 것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풍 집안친환경저 부장